

1년간의 北海道 酪農 研修를 마치고

- 김 병 근(전북 김제) -

평소에 낙농에 관심이 있어 익산대학 동물자원과에 재학중이던 '97년 겨울 IMF한파가 몰아치면서 국내에서는 물가상승, 기업의 부도, 실업을 증가 등으로 사회가 공포 얼어붙은 상태에서 나에게 선진낙농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해외 출국을 자제시키고 온 국민이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어 어느 때인데 무슨 해외연수냐?”하는 주위의 질책도 있었다.

그렇지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질까?”하는 면(욕심)에

서 연수를 가기로 결심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출국날까지 정해졌다.

1달여 여유가 있어 일본생활에 약간의 불편을 덜기위해 근처 계현목장에서 기본적인 살습과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출국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출국일, 공항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주신 종축개량협회 윤여창 전 부회장님과 한국농업전문학교 연수생 1명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처음 나를 맞이한 북해도 지도세(千歲)공항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절기

상으로 입하였지만 아직도 쌀쌀한 감이 옷깃을 여미게 하였다.

공항에서 우리 일행을 처음으로 맞이하여 준 일본인은 내가 연수하게 될 목장의 인근목장인 호소다(細田)목장 주인인 호소다씨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

하루밤을 호소다 목장에서 묵은 다음날 우리는 호소다 목장에서 5분거리에 있는 구로자와(黒澤)목장에 도착하였다.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70이넘은 백발의 노신사(구로자와씨) 주인 아저씨와 주인 아주머니를 처음 대하는 순간 나는 어

면 실수라도 하면 앓된다는 중압감으로 간단한 인사조차 하질 못했다.

거실에서 잠시 머문 후 샷포로에 위치한 “복해도 국제 농업 교류회”를 방문하여 철차를 마치고 돌아왔다.

내가 머물게 될 방을 주인 아주머니께서 정해 주셨고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다.

그러나 나는 손짓 발짓 외에는 아무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방문을 열어보니 언제 이 방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자욱히 깔려 있었다. 대충 청소를 마쳤을 때 주인 아주머니께서 “짐을 정리하고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쉬라고 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데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후에 알고보니 짐을 정리하고 목장을 산책해도 좋다는 내용이였다.

3일째부터 나의 연수생활은 시작되었다. 아침 5시 기상, 오후 7시에 일과가 끝났다.

모든 일과 작업은 주인 아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으며, 주인 아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었으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로 일을 시키

지 않았다.

모든 일과 생활이 생소했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의 생활적응 등 모든 것을 일본인 생활방식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과, 이들은 서구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 우리와 조금 다른 사고방식들이 처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도 하였으나 차츰 적응해 가고 있음을 나 자신도 알 수 있었다.

내가 맡은 일은 TMR 배합, 급여와 유방염에 전이된 소의 분만전·후 소의 착유관리, 후리스톨 관리, 착유실 청소 등의 일이 나에게 주어졌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차질없이 끝내야만 했다.

만일 잘못 되었을대에는 지적만 있을 뿐, 절대 대신해 주는 일이 없고, 반복하여 지적되면 질책을 받게 된다.

한번은 휴일 저녁에 동료의 일이 바쁠 것 같아서 도와주려 했지만 “괜찮다, 휴일에는 일과 관계가 없다. 쉬어라”해서 오히려 무안하게 된 적이 있었다.

구로자와 목장의 규모는 대지 5Ha, 목초지 20Ha, 경산우 100두, 육성우 100두, 후리스톨 우사 600평, 2열 10두식 헤링본 착유실, 파이프라인 우사, TMR배

합실, 트랙터 8대, 트럭 8대, 하베스터 2대, 베일러, 래핑기, 로더 등 모든 낙농기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잔디정원과 연못이 있는 아름다운 목장을 6명이 관리한다.

경산우, 송아지는 아들, 며느리, 연수생 2명이, 육성우, 목초지, 시설관리는 주인과 목부 2명이 관리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헬퍼를 이용한다.

6월이 되면 바빠진다. 목초일이 시작되며,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 때문에 좋은 건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며, 우사관리 2명이외에는 모두 목초작업을 기계로 하고 있다.

바쁠때에는 주인이 없어도 분만우와 이상이 있는 소는 매일 같이 수의사가 알아서 관리하여 준다.

발정확인만은 만보기에 의해서 착유시 자동체크되며, 수정은 자가수정, 수정란 이식도 수정란 이식센타에 의해 하고 있다.

내가 관리하던 유방염 감염우의 우유는 모두 버려진다. 하루 200kg 정도, 우유가 피부에 좋기에 나는 매일같이 버리기 전에 얼굴을 고 버렸다. 샤워를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더위가 기승을 부릴만한 7,8월의 날씨도 조석으로는 좋다. 한낮에도 땀 한방울 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수태율도 저하되지 않는다.

이때면 학생들도 방학기간이 되어 실습을 나온다.

4명이나 되어 나의 일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 예취기로 정원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덥지도 않은 날씨에 풀은 왜 이리 빨리도 자라는지”라고 푸념을 하기도 하였다. 목장으로 소풍, 견학오는 인원이 많아 주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

구로자와 목장의 최고참 우공은 15세짜리이다.

자연적인 여건과 넓은 초지로 조사료 생산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40년전부터 꾸준히 실시해온 가축개량의 성과라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후리스틀 관리로 발굽이상, 스트레스 등으로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고 하지만 평균 7~8산, 유량 30kg, 유지율 40%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분만에 서 4~5개월령까지의 송아지 관리로써, 포유기에 분유급여시 물의 온도를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 입으로 한모금 넘겨 확인할 정도이다.

옥수수 싸일리지 작업으로 밭일이 모두 끝나고 겨울채비에 들어갈 무렵 실습생 1명이 실습을 마치고 돌아가 나의 일은 오히려 늘었다.

11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었고, 어느날 첫눈이 엄청 많이 왔다.

그곳에서 맞는 크리스마스, 거리는 온통 크리스마스 휴리로 분야성을 이뤘으나 23일의 천황탄생일은 휴일, 크리스마스는 쉬지 않는다.

새벽 눈을 밟으며 시작되는 하루, 줄음이 밀려오지만 얼굴에

부딪히는 차가운 바람에 날라가고, 추위와 함께 한바탕 하고 나면 하루해는 내일을 위해 저문다.

연수가 끝날무렵 북해도 국제농업교류협회에서 1주일간의 여행이 주어졌다. 일본의 높은 물가덕분에 예상 교통비만 100만원, “이게 웬 떡이나? 가자 도쿄로” 출고 긴 북해도의 겨울, 넓은 초지에 한가로이 풀을 뜯는 우공, 관리자의 편안함 보다 소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락함을 주기위한 사양관리, 낙농 기계화, 꾸준한 가축 개량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북해도 낙농현장의 모습을 1년간의 연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아울러 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종축개량협회 윤여창 전 부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

가장 완전한 식품인 우유를 마십시오

근친번식은 축산의 적, 인공수정으로 근친을 막아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워나갑니다